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실태: 성과 학년별 차이를 중심으로

김형만, 이보람, 조미현
청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교육과
forestgump1@hanmail.net, ramiga@hanmail.net, mihjo@cje.ac.kr

Current Status of Elementary Students' Internet Addiction: Differences according to Students' Gender and Grade

Hyeong Man Kim, Bo Ram Lee, Miheon Jo
Dept. of Computer Education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요 약

최근 인터넷의 오남용으로 인한 역기능 중에서 특히 인터넷 중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10대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률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인터넷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지도하여 인터넷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10대 청소년들 중에서도 특히 판단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실태를 분석하고, 성과 학년에 따른 중독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989명의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응답자의 5.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고위험사용자군에 속하며, 15.7%의 학생들이 잠재적위험사용자군으로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학생들의 특성 중에서 성과 학년에 따라서 중독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성에 따라서는 중독 검사의 총점과 6가지 세부 항목(일상생활 장애, 긍정적 기대, 금단, 가상적 대안관계 지향성, 일탈행동, 내성) 모두에서 남녀학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또한 학년에 따라서 중독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중독 검사의 총점과 4가지 세부 항목(일상생활 장애, 금단, 일탈행동, 내성)에서 5학년과 6학년 학생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bstract

With recent surge of Internet use, many people become concerned with side effects of Internet. Especially Internet addiction has become a significant issue. As the rate of teenagers' Internet use is higher than the rates of other age groups, and Internet takes an important part in teenagers' everyday lives, many people become concerned with Internet addiction. Internet addiction is salient even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realities of elementary students' Internet addiction using an evaluation tool developed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o analyze differences in the addiction rate according to students' gender and grade. A survey was conducted to 989 5th and 6th graders selected from nationwide school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5.0% of the students are in the stage of serious addiction, and 15.7% in the stage of early addiction. In addition, significant differences are found between boys and girls and between 5th graders and 6th graders.

1. 서론

인터넷의 이용률이 급증함에 따라서 인터넷은 TV, 라디오, 신문과 더불어서 4대 대중매

체 중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다[11]. 특히 10대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률은 다른 연령층과 비교할 때 제일 높은 비율을 보이며[10], 10대들에게 인터넷은 정보습득, 의사소통, 감정표현 등을 위한 주요 수단인 동시에 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인정받고 있다[2]. 그러나 10대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판단력 부족, 억압감, 불안, 스트레스 등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특성을 고려할 때, 인터넷 오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실태를 파악하며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터넷 사용의 역기능 중에서도 특히 인터넷 중독에 대한 우려가 크다[2][8].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 활용에 집착하는 가운데 기분의 변화, 내성 현상, 금단 현상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며,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업 지장, 대인관계 장애, 신체적·정신적 이상 현상 등을 경험하게 되어 현실 세계에서의 생활에 지장을 받게 된다[4][6][7].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실태를 중·고등학생의 중독 실태와 비교했던 한 연구[8]는 인터넷 중독 증상을 보이는 고위험사용자군과 잠재적위험사용자군 모두에서 초등학생의 중독률이 중·고등학생의 중독률보다 더 높았으며, 학교급에 따른 중독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등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을 지적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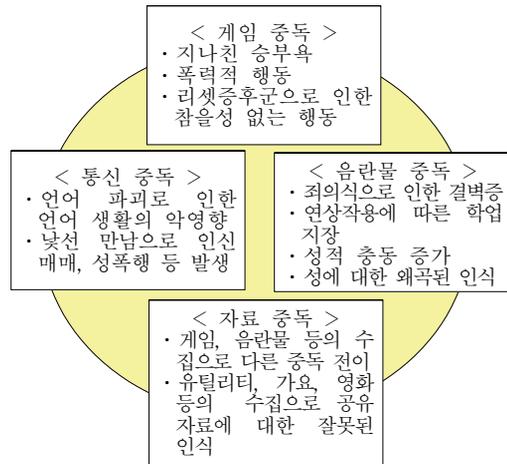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에 초점을 두고, 5, 6학년 학생 9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인터넷 중독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학생들의 성과 학년에 따라서 인터넷 중독의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인터넷 중독의 의미와 특성

인터넷 중독이란 ‘집착’, ‘금단’, ‘내성’ 등 여러 가지 현상을 야기하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증상을 의미한다[2][7]. 구

체적인 중독 증세로는 ‘일상 생활 부적응’, ‘감정 조절 능력 감소’, ‘자기 통제 능력 감소’,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혼동’, ‘인터넷 사용량의 증가’, ‘대인 관계 장애’ 등이 나타난다. 한편 인터넷 중독은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 ‘자료 중독’, ‘통신 중독’과 같은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중독 유형별로 발생하는 부작용들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5][13].



[그림 1] 중독 유형별 부작용

알코올, 약물, 본드 등의 물질 중독과 구분되는 인터넷 중독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3].

- 다른 중독 현상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과 달리, 인터넷은 그 순간기능이 더 부각되기 때문에 중독 현상이 적응적인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어 중독 증상을 발견하기 어렵다.
- 중독 수준에 이른 사람도 자신이 중독자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
- 기계 중독으로서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 다른 종류의 중독에 비해 훨씬 다양하게 나타난다.
-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가능하여 가상 공간과 실제 상황과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며, 현실 도피라는 속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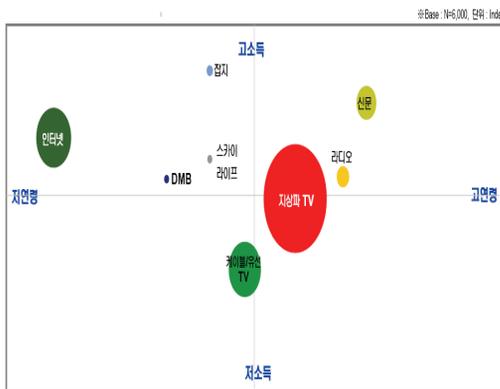
2.2 10대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과 관심

연령대별 인터넷의 사용률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실시한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10]. 10대들은 남학생이 98.2% 그리고 여학생이 97.8%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가장 높은 사용률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1> 연령별 인터넷 사용률
단위: %

연령층	남자	여자
10대	98.2	97.8
20대	96.9	96.7
30대	94.2	85.2
40대	75.7	57.5
50대 이상	40.1	18.5

한편, 다양한 연령대의 6,000명을 대상으로 8가지 매체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정리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10]. 이 그림은 매체별 관심도를 6점 척도로 알아보고 Top2에 해당하는 '매우 관심'과 '관심' 항목 응답자의 연령과 소득 평균에 의해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며, 원의 크기는 절대적인 관심도를 의미한다. 이 그림을 보면 10대 학생들이 인터넷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2] 2008년 매체별 관심도 포지셔닝

출처: 한국방송광고공사(2008). Media and Consumer Research 보고서. p.89.

이와 같이 10대 학생들의 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인터넷이 제공하는 익명성, 개방성, 연결성, 가상성, 선명성 등과 같은 사이버문화의 특성이 학생들에

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이버문화가 제공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12]. 인터넷 오남용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커질 때, 인터넷의 순기능보다는 일상생활 부적응, 현실과 가상 세계의 혼돈 등 다양한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 2> 사이버문화의 영향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 의견 표현의 자유	· 무책임, 무절제 조장
· 정체성 실험	· 개인에 대한 집단규범 약화
· 평등 관계 형성	· 탈개인화에 따른 비절제 행위 조장
· 참여 기회 확대	· 비검증 정보 확산
· 공동체 형성	· 현실 감각의 약화
· 정보 원천 다양화	· 현실 도피
· 정보 공유	· 왜곡된 현실 인식
· 현실적 장벽 극복	· 비정상적 행위 조장
· 자유로운 사고 실험	
· 다양한 사회역할 이해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대상 학교들을 표집하고, 각 학교의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9년 12월에 인터넷 중독 검사를 실시하였다. 모두 989명의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참여 학생들의 성, 학년과 학교 소재지별 분포는 <표 3>과 같다.

<표 3> 연구 대상 학생의 배경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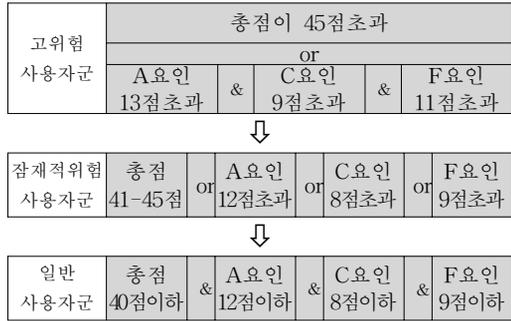
구분		참여 학생수(%)
성	남	495(50.1)
	여	494(49.9)
학년	5	488(49.3)
	6	501(50.7)
학교 소재지	특별시·광역시	256(25.9)
	중소도시	385(38.9)
	읍면 이하	348(35.2)
합계		989(100)

3.2 연구 도구

인터넷 중독 실태를 파악하고자 본 연구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 현실에 맞는 도구로 개발한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래는 4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가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20개의 문항(<표 7> 참조)으로 재구성되어 사용되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인터넷 중독 관련 이론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장애(A), 긍정적 기대(B), 금단(C), 가상적대인관계지향성(D), 일탈행동(E), 내성(F) 등과 같은 중독의 제반 증상을 포괄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문항은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때때로 그렇다, 3: 자주 그렇다, 4: 항상 그렇다)로 평정된다.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는 중독 집단을 문항의 총점 또는 일상생활장애(A), 금단(C), 내성(F)과 같은 3가지 요인 각각의 합계를 사용하여 분류한다. 이 척도를 사용하여 중독 집단을 분류하는 절차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구분하여 진행된다. 아래 [그림 3]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독 집단을 분류하는 절차를 보여준다.



[그림 3] 인터넷 중독자 집단 분류 절차

3.3 자료 분석 방법

설문조사 결과로 수집된 자료를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설문 응답 학생 전체에 대해, [그림 3]에 정리한 평가 절차에 따라서 인터넷 중독 수준을 분석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특성 중에서 성과 학년에 따라서 인터넷 중독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인터넷 중독 실태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98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의 5.0%가 고위험사용자군으로 분류되었으며, 15.7%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잠재적위험사용자군으로 분류되었다.

<표 4> 인터넷 중독 실태 분석 결과

수준	해당 학생수(%)
고위험사용자	48(5.0)
잠재적위험사용자	151(15.7)
일반사용자	764(79.3)

본 연구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학생의 인터넷 중독 실태를 조사했던 선행 연구 [8],[9]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여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고위험사용자군과 잠재적위험사용자군에 속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2003년 연구보다는 증가하고, 2005년 연구보다는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5> 초등학생 인터넷 중독 분석 결과 비교
단위: %

수준	2003년 10월	2005년 7월	2009년 12월
고위험 사용자	5.5	5.0	5.0
잠재적위험 사용자	12.4	17.9	20.7
일반사용자	82.1	75.2	79.3

그러나 중독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이 여전히 20%이상이나 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잠재적위험사용자군에 속하는 학생들 역시 고위험사용자군의 학생들과 동일하게 학업에 지장을 받으며 강박증·대인민감성·적대감·우울·공포·불안 등의 심리적인 부적응 증상을 보인다는 사실[2]을 고려할 때 인터넷 중독 치료는 물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2 학생의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차이

4.2.1 성에 따른 차이

중독 수준별 남녀 학생의 분포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중독 수준별 남녀 학생 분포
단위: %

	전체	성	
		남	여
고위험사용자	5.0	4.4	0.6
잠재적위험사용자	15.7	11.0	4.7
일반사용자	79.3	34.3	45.0

한편, 6개 영역으로 구분한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의 문항별 설문 응답 결과를 전체와 학생의 성을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문항별 설문 응답 결과

항목 번호	질문	전체	성	
			남	여
1	인터넷 사용으로 건강이 이전보다 나빠진 것 같다.	1.50	1.64	1.36
2	인터넷을 너무 사용해서 머리가 아프다.	1.37	1.48	1.27
3	인터넷을 하다가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다.	1.63	1.73	1.52
4	인터넷을 하느라고 피곤해서 수업시간에 잠을 자기도 한다.	1.11	1.16	1.06
5	인터넷을 너무 사용해서 시력 등에 문제가 생겼다.	1.61	1.77	1.46
6	다른 할 일이 많을 때에도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다.	1.75	1.86	1.63
7	인터넷을 하는 동안 나는 더욱 자신감이 생긴다.	1.45	1.61	1.29
8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생활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1.52	1.70	1.35
9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1.19	1.29	1.10
10	인터넷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인터넷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	1.41	1.62	1.20
11	인터넷을 할 때 누군가 방해를 하면 짜증스럽고 화가 난다.	1.66	1.77	1.55
12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현실에서 아는 사람들보다 나에게 더 잘해준다.	1.33	1.40	1.26
13	오프라인에서보다 온라인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더 많다.	1.37	1.45	1.29
14	실제에서 보다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1.33	1.41	1.25
15	인터넷 사용시간을 속이려고 한 적이 있다.	1.51	1.64	1.38
16	인터넷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쓰게 된다.	1.37	1.57	1.19
17	인터넷을 하다가 그만 두면 또 하고 싶다.	1.62	1.82	1.42
18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1.47	1.66	1.29
19	인터넷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곤 한다.	1.63	1.78	1.47
20	주위 사람들이 내가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한다고 지적한다.	1.44	1.65	1.24

이와 더불어서 중독의 6가지 항목별 평균 점수와 전체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에 있어서 성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표 8>에 정리된 바와 같이 모든 항목들과 전체 평균 점수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중독 성향을 보였다.

<표 8> 중독 영역 및 전체 평균의 성차이

항목	성		T검정
	남	여	
일상 생활 장애(A)	1.61	1.38	t=7.768 p=.000
긍정적 기대(B)	1.61	1.29	t=6.877 p=.000
금단(C)	1.59	1.30	t=8.389 p=.000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D)	1.42	1.27	t=4.155 p=.000
일탈행동(E)	1.60	1.28	t=8.629 p=.000
내성(F)	1.73	1.36	t=10.055 p=.000
문항 전체 평균	1.40	1.12	t=8.339 p=.000

4.2.2 학년에 따른 차이

학생들의 학년을 구분하여 중독 수준별 분포를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중독 수준별 학년 분포

	전체	학년	
		단위: %	
		5	6
고위험사용자	5.0	2.0	3.0
잠재적위험사용자	15.7	6.0	9.6
일반사용자	79.3	41.1	38.3

한편 6개 영역으로 구분한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의 문항별 설문 응답 결과를 전체와 학생의 학년을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문항별 설문 응답 결과

문항번호	질문	전체	학년	
			5	6

A	1	인터넷 사용으로 건강이 이전보다 나빠진 것 같다.	1.50	1.47	1.52
	2	인터넷을 너무 사용해서 머리가 아프다.	1.37	1.36	1.38
	3	인터넷을 하다가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다.	1.63	1.56	1.69
	4	인터넷을 하느라고 피곤해서 수업시간에 잠을 자기도 한다.	1.11	1.09	1.13
	5	인터넷을 너무 사용해서 시력 등에 문제가 생겼다.	1.61	1.57	1.66
	6	다른 할 일이 많을 때에도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다.	1.75	1.63	1.86
B	7	인터넷을 하는 동안 나는 더욱 자신감이 생긴다.	1.45	1.43	1.48
	8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생활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1.52	1.42	1.62
C	9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안전부절 못하고 조조해진다.	1.19	1.17	1.21
	10	인터넷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인터넷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	1.41	1.33	1.48
	11	인터넷을 할 때 누군가 방해할 하면 짜증스럽고 화가 난다.	1.66	1.57	1.75
	12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현실에서 아는 사람들보다 나에게 더 잘해준다.	1.33	1.29	1.38
D	13	오프라인에서보다 온라인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더 많다.	1.37	1.33	1.41
	14	실제에서 보다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1.33	1.33	1.33
E	15	인터넷 사용시간을 속이려고 한 적이 있다.	1.51	1.40	1.61
	16	인터넷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쓰게 된다.	1.37	1.29	1.45
	17	인터넷을 하다가 그만 두면 또 하고 싶다.	1.62	1.54	1.70
F	18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1.47	1.41	1.53
	19	인터넷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곤 한다.	1.63	1.60	1.65
	20	주위 사람들이 내가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한다고 지적한다.	1.44	1.39	1.49

이와 더불어서 중독의 6가지 항목별 평균 점수와 전체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에 있어서 학년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11>에 정리된 바와 같다. 문항 전체 평균에 대해서 학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6학년이 5학년보다 더 높은 중독 성향을 보였다. 또한 중독의 항목별로 학년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긍정적 기대’와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을 제외한 4개 영역에서 학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모든 경우에서 6학년이 5학년보다 더 높은 중독 성향을 보였다.

<표 11> 중독 영역 및 전체 평균의 학년별 차이

항목	학년		T검정
	5	6	
일상 생활 장애(A)	1.44	1.54	t=-3.124 p=.002
긍정적 기대(B)	1.43	1.48	t=-1.072 p=.284
금단(C)	1.37	1.52	t=-4.006 p=.000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D)	1.32	1.37	t=-1.436 p=.151
일탈행동(E)	1.35	1.53	t=-4.757 p=.000
내성(F)	1.49	1.59	t=-2.709 p=.007
문항 전체 평균	1.21	1.31	t=-2.983 p=.003

5. 결론 및 제언

인터넷이 주요 매체로 인식됨에 따라서 인터넷의 오남용으로 인한 역기능, 특히 인터넷 중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10대학생들의 인터넷 사용률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인터넷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지도하여 인터넷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10대 청소년들 중에서도 특히 판단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 989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실태를 분석하고, 성과 학년에 따른 중독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응답자의 5.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고위험사용자군에 속하며, 15.7%의 학생들이 잠재적위험사용자군으로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학생들의 성과 학년에 따라서 중독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성에 따라서는 중독 검사의 총점과 6가지 세부 항목(일상생활 장애, 긍정적 기대, 금단,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일탈행동, 내성) 모두에서 남녀학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독 증상을 더 보였다.

또한 학년에 따라서 중독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중독 검사의 총점과 4가지 세

부 항목(일상생활 장애, 금단, 일탈행동, 내성)에서 5학년과 6학년 학생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6학년 학생들이 5학년 학생들보다 중독 증상을 더 보였다.

이상 본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초등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수준의 심각성과 성과 학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인터넷 중독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위험사용자군에 속하는 학생들은 인터넷 사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내성 및 금단 현상을 경험하는 등 심각한 장애 현상을 보이기에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이와 비교할 때, 잠재적위험사용자군에 속하는 학생들은 인터넷 사용시간이 늘어나고, 인터넷에 집착을 나타내는 가운데 경미한 수준의 생활 장애를 보이게 된다. 이 학생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인터넷 과다 사용의 위험을 깨닫고 스스로 조절하며 계획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일반사용자군에 속하는 학생들 역시 인터넷 중독의 가능성이 늘 존재하기에 인터넷을 건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자기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의 성과 학년에 따라 중독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남학생과 고학년 학생들에 대한 좀 더 세심한 지도가 요구된다.

앞으로 인터넷이 초등학생들의 생활 속에 더욱 깊이 자리 잡을 것을 고려할 때, 초등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중독 치료 및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적용 효과 역시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권준수(2001). 인터넷 중독증. 의사협회지. 4(8). 759-764.
- [2] 김청택, 김동일, 박중규, 이수진(2002).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 및 예방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3] 김현수 역(2000). 인터넷 중독증. 서울: 나

늬의 집.

- [4] 김혜정, 조복희(2003).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정신 건강과의 관계.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6(2). 97-110.
- [5] 어기준(2000). 청소년 PC 중독의 유형과 문제점. 한국청소년상담원 편. 청소년 PC 중독.
- [6] 이석범, 이경규, 백기청, 김현우, 신수경 (2001). 중·고교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과 불안, 우울, 자기 효능감의 연관성. 신경정신의학. 40(6). 1174-1184.
- [7] 정보통신부,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3). 인터넷중독자가진단검사(K-척도)와 예방교육프로그램.
- [8] 조미현(2006). 중·고등학생과 비교한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실태와 영향 요인. 정보교육학화논문지. 10(1). 55-66.
- [9] 조미현, 신경선(2004).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현황 및 원인.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7(5). 45-56.
- [10] 한국방송광고공사(2008). Media and Consumer Research 보고서.
- [11] 한국방송광고공사(2001). Media and Consumer Research 보고서.
- [12] 황진구, 권태희(2003). 청소년의 사이버커뮤니티 참여 및 이용실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13] Suler, J. (2002). The basic psychological features of cyberspace. <http://www.rider.edu/~suler/psycyber/basicfeat.html>.